

고대 창조 신화와 새 창조론

아키후미 오타니
통일사상연구원 부원장

인류는 오랜 옛날부터 여러 차원의 신화를 만들어왔다. 거기에는 천지창조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적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거기에는 이 세계의 기원에 대한 흥미진진한 내용이 내재되어 있다. 유대(Judaical)-그리스도교의 창세기 이외에 세계의 여러 종교에서도 천지창조에 대한 기술을 상당히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신화나 종교의 천지창조에 관한 기술은, 대부분의 경우, 오늘날 과학시대에서 볼 때 황당무계한 것처럼 생각되거나 단순한 옛날이야기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사상의 새 창조론의 관점에서 이들의 창조신화를 재해석하면, 결코 황당무계하거나 단순한 옛날이야기가 아닌 것이 다수 발견된다. 본고는 통일사상의 새 창조론의 입장에서 전통적 창조신화를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고자 시도한 글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인들도 새 창조론의 진리성의 일면을 공유하는데 본고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1. 원인(原人) 신화

태초에 원인(原人)이 존재하고, 원인의 신체로부터 인간, 동물, 식물, 하늘과 땅이 생겼다는 신화가 세계 각지에 보인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아래에 소개한다.

(1) 거인 프르시아(고대 인도 신화)

고대 인도의 讚歌 리그 베다(Rig Veda)에 따르면 신들은 최초로 거대한 原人(primordial man, Purusha)을 희생물로 하여 그 신체로부터 세계를 만들었다고 전한다. 프르시아의 신체가 뿔뿔이 흐트지면서, 머리로부터 ‘하늘’, 발로부터 ‘땅’, 배꼽으로부터 ‘대기’, 귀로부터 ‘방향’이 생겼다. 심장으로부터 ‘달’, 눈으로부터 ‘태양’, 입으로부터 신들의 왕 ‘인드라 신’(Indra)과, 불귀신 ‘아다니신’(Agni), 호흡에서 바람 신 ‘보유’(Vayu)가 생겼다. 그리고 인간의 4 계급도 프르시아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다시 프르시아의 입으로부터 ‘브라만’(brahmin, 제사계급), 양쪽 가슴으로부터 ‘크샤트리야’(kshatriya, 왕족: 제사계급), 양쪽 넓적다리로부터 ‘바이샤’(vaisha, 농민, 직인, 서민계급), 양발로부터 수드라(shudra, 노예계급)가 생겨났다고 전한다.

(2) 거인 반고(盤古)(고대 중국 신화)

하늘과 땅이 생기기 이전 혼돈한 안개와 같은 상태가 존재했다. 그 혼돈 속에서 반고(盤古)가 태어났다. 반고는 점점 성장해서 거인이 되었지만, 드디어 죽음을 맞이했다. 죽은 반고는 만물의 근원이 되었다. 그 호흡은 ‘바람’이 되고, 소리는 ‘천둥’(벼락)이, 왼쪽 눈은 ‘태양’이, 오른쪽 눈은 ‘달’이 각각 되었다. 머리카락은 ‘별’이 되고, 땀은 ‘비’가 되었다. 수족은 땅의 4개의 ‘기둥’이 되고, 몸은 5개의 ‘명산’이 되었다. 피는 ‘강’이, 고기는 ‘흙’이, 가죽(껍질)이나 털은 ‘초목’이, 이나 뼈는 ‘금속’이나 ‘돌’이 각각 되었다. 정액과 골수는 ‘진주’와 ‘비취’가 되었다. 그리고 신체에 기생하고 있었던 벌레들이 ‘인간’이 되었다고 전한다.

(3) 거인 위미르(Ymir) (북유럽 신화)

거인 위미르(Ymir)는 세계 최고의 인간존재로서, 신들과 그들의 적인 거인 일족의 공통 선조였다. 거인 위미르는 오딘(Odin), 빌리(Vili), 베(Ve) 등 3기둥의 형제 신에 의해 살해되었고, 3신은 위미르의 죽은 몸을 통해서 세계를 만들었다. 위미르의 신체에서 살은 ‘대지’가 되고, 피는 ‘바다’가 되고, 뼈는

‘바위’가 되고, 이와 부서진 뼈는 ‘돌’이나 ‘모래’가 되고, 머리털은 ‘수목’이 되었다. 頭蓋骨은 ‘하늘’이 되어 대지 위에 두어졌다. 그리고 두뇌는 ‘구름’이 되었다.

(4) 태초의 여신 티아마트(바빌로니아 신화)

구세주라 불리는 태양의 아들, 마르두크 신(Marduk)은 담수의 바다의 여신 티아마트(Tiamat)를 죽이고, 그녀를 둘로 나누었다. 그래서 티아마트의 몸의 상반신에서 ‘별을 포함한 하늘’이 만들어지고, 하반신에서 ‘식물과 동물을 포함한 대지’가 만들어졌다. 티아마트의 혈액으로부터 ‘비-구름’을 만들어지고, 눈으로부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만들어지고, 가슴으로부터 ‘산맥’이 만들어지고 산에서 맑은 물이 흘러내렸다. 티아마트의 사령관인 키크(kingu)의 잘려진 목피로부터 ‘인간’이 만들었다.

(5) 이나자기 신화(일본 신화)

이나자기(Izanagi)와 이자나미(Izanami)의 남녀신은 부부의 교제에 의해 8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일본 열도를 낳았다. 그 후, 산 신, 바다 신, 바위, 흙, 나무, 바람, 오곡 등 수많은 신들을 낳았지만, 최후에 불귀신을 낳았을 때, 이자나미는 陰部로 태워져 죽어 황천(Yomi)세계로 흘러들었다. 황천세계의 아내를 방문하면서 ‘이나자기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방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는 全身에 구더기가 들끓은 보기 흉한 아내의 신체가 있었다. 이나자기는 어쩔 줄 모르고 도망쳤다. 이나자기가 황천세계에서 돌아온 후, 제사를 지낼 때, 그의 왼쪽 눈에서 태양신의 ‘아마테라스’ (Amaterasu)가, 오른쪽 눈에서 달 신의 ‘츠키요미’(Tsukiyomi)가, 코로부터 폭풍신의 성격이 현저한 ‘스사노’(Susano)가 태어났다.

(6) 태초 신화와 새 창조론

태초 신화에 따르면, 태초에 원인(原人)이 존재하고, 그 원인의 몸에서 인간과 만물이 태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 이야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새 창조론에 따르면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시조(아담, 해와)의 구상을 세우고, 그 구상을 모델(model)로 하여 인류, 동물, 식물, 광물, 천체가 구상되었다. 곧 신화의 原人은 만물의 원형이 된 인간시조를 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원인이 죽여져서 빨빨이 흐뜨러진 것이 아니라, 原人으로 표현되어 있는 인간시조의 모습(구상, 설계도)을 견본으로 하여 그것을 捨象하고, 變形하면서, 만물이 구상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原人の 몸으로부터 창조 신화는 새 창조론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우주란 신화

이 세계가 하나의 알에서 태어났다는 신화가 세계 각지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유대(Judaical)-그리스도교의 천지창조 신화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전해지지만, 마지막 문장의 히브리어(Hebrew)의 표현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대한 새의 형태를 취하고, 태초의 대양(大洋) 위에서 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2) 힌두(Hindu)교의 우주창조 신화

사타파타 부라하마나(Satapatha Brahmana)의 신화에 따르면 세계창조 이전에 단지 최초의 바다가 있었다. 바다는 생명 낳기를 강력하게 원했는데 어느 정도 여건이 조성되어 충분히 따뜻해지자 황금 알이 태어났다. 이 알은 1년간 미즈노에를 떠돌고 있었지만, 1년 후 그 안에서 푸라자파티 (Prajapati) 신이 태어났다. 푸라자파티는 알의 껍데기를 부수고 나온 후, 그 껍데기 위에서 약 1년간 머물고, 입을 열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대지가 되었다. 그 다음 말이 하늘이 되었다. 한편, 다른 여러 차원의 말이 계절이 되었다.

최고의 찬도그야 우파니샤드(Chandogya Upanishad)에도 알의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동서에서 푸라자파티는 창조 신 브라만(Brahma, 梵天)이 되어 있다. 브라만은 최초로 바다를 만들고 그 중심에 종자 한 알을 심었다. 그 종자가 곧 알로 성장했다. 그것을 브라만(Brahma)은 둘로 나누었다. 이 알의 금(金)의 부분에서 '천공'이 나타나고, 은(銀)의 부분에서 '대지'가 생겨났다. 그리고 모든 삼라만상이 창조되었다.

(3) 중국의 반고 신화

최초에 거대한 알이 있었으며, 그 안은 혼돈상태였다. 그것은 음양-남녀, 정과 동, 냉과 열, 혼돈과 질서가 섞여있는 것이었다. 이 음양 안에 반고가 있었다. 드디어 알 속에서 반고가 나타나 성장하면서 하늘과 땅이 갈라지게 되었다. 깨끗하고, 밝은 부분은 하늘이 되고, 흐린 부분은 땅이 되었다. 그리고 18,000년이 경과 후, 하늘과 땅은 분리되었다.

(4) 그리스의 우주란 신화

여성 신 카오스(Khaos, Chaos)가 바다를 만들고, 그 물결 위에서 춤을 추었다. 그 춤에서 나타난 바람에 의해서 물질이 생겼다. 카오스(Khaos)는 그 물질로부터 거대한 뱀을 만들었다. 카오스는 비둘기의 모습인 후 거대한 알을 낳고, 뱀이 그것을 부화시켰다. 이 최초의 알에서 우주 만물이 생긴 것이다. 오르페우스(Orpheus)교(Orphism)의 창조 신화에 따르면 시간의 신 크로노스는 은(銀)의 우주란을 만들었다. 그 알에서 최초의 신 파네스(Phanes)가 태어났다. 파네스는 자신의 몸으로 딸 니크스(Nyx, 밤)를 만들고, 니크스와 교접하여 천지의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5) 이집트(Egypt)의 우주란 신화

헤르모폴리스(Hermopolis)의 신화에 의하면 세계가 존재하기 전, 태초의 바다 속에 4쌍(pair)의 남성 신과 여성 신 쌍(8神, Ogdoad)이 있었으며, 남성 신과 여성 신의 변증에 의해서 태초의 융성한 땅이 생겼다. 태초의 융성한 땅속에 우주 알이 포함되어 있었다. 알은 부화되고 융성한 땅은 불새가 되었으며 거기에서 막 태어난 태양신이 하늘로 올라서 하늘에 자리를 잡았다. 우주의 탄생의 대격변이라고 부르는 헤르모폴리스 신화는 현대의 빅뱅(big bang)이론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헤리오폴리스(Heliopolis)신화에 의하면 태초에 베누(benu)라고 불리는 성스러운 새의 모습을 한 아투트(Atum)신이 나타났다. 그 새가 바다 위에서 울어서 흔들림이 나타나면서 창조가 시작되었다. 한편, 아문(Amun)신이 바다(Nun, 눈) 위에서 거위처럼 울 때, 우주적 격동이 생겼다는 기술도 있다. 새가 태초의 융성한 땅에 앉아서 알을 낳았다. 알이 부화하며, 거기에 태양신이 나타났다. 그리스(Greece)의 헤로도토스(Herodotos, Herodotus)는 그 새를 불새(Phoenix))라고 기술하였다.

(6) 핀란드(Finland)의 알 신화

핀란드(Finland)의 서사시 카라발라(Kalevala) 속에 창조의 이야기가 있다. 최초로 원시 바다와 하늘이 있었다. 하늘의 딸 일마타르(Ilmatar)가 해상을 떠돌고 있을 때, 한 마리의 오리가 날아들어서 일마타르의 무릎에 황금 알 6개와 동으로 된 알 1개를 낳았다. 일마타르의 무릎으로부터 떨어진 알은 수중에 떨어지고, 바람에 흔들리며, 물결에 부딪쳐서 깨져버렸다. 알의 껍데기 아래는 대지가 되고, 위의 부분은 넓은 하늘이 되고, 흰자위는 달과 별이 되고, 노른자위는 태양이 되었다. 그 후 일마타르는 최초의 인간이 되어 바이아모니넨(Vainamoinen)을 낳았다.

(7) 고구려의 알 탄생 신화

1) 고구려

한국의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에 의하면 고구려와 신라의 건국 시조는 알 신화로 서술되어 있다. 동부여의 금와 왕의 시대이다. 왕은 어느 날, 강가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 유화를 만났다. 유화는 천제의 손(孫)을 임신하고 있었다. 왕이 유화를 데리고 왕궁에 돌아오니, 유화가 큰 알을 낳았다. 그것이 부화되어 알에서 한 명의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사내아이는 주몽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주

몽의 재주를 두려워한 금와 왕의 왕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받게 된 주몽은 도망치게 되었다. 주몽 일행은 엄리수에 이르러 쫓기게 되었지만, 물고기와 자라가 일렬로 다리를 만들어,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주몽이 남하한 후 고구려를 건국하고 고구려의 시조가 되었다. 주몽은 동명성왕이라고 불리었다. 주몽의 아들, 온조가 백제를 일으켰다. 따라서 백제는 고구려와 같은 제국이 되었다.

2) 신라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도 알에서 생겼다고 전한다. 현재의 경주를 거점으로 있었던 欺盧國(진한)의 6부의 족장들이 함께 어느 날 ‘군왕을 보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천제를 올렸다. 그러자 한줄기 광선이 천지를 비추었다. 거기에는 한 마리의 백마가 보라색으로 반짝이는 큰 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알에서 태어난 인물이 박혁거세이며, 그는 신라의 왕이 되었다. 신라의 제4대 왕, 탈해도 배에 태워 갈 때 알에서 태어났다고 전한다. 신라 가야의 왕, 수로왕도 하늘에서 내려온 황금빛알의 6개의 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알에서 제국의 시조가 태어났다는 신화가 많이 전해지고 있다.

(8) 일본의 신화

‘일본서기’에 의하면 천지는 닭의 알과 같은 상태로부터 생겼다고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옛날에 천지는 아직 갈라지지 않았고, 음과 양의 구별도 없었다. 혼돈스러운 닭의 알인 것 같았지만, 아직 경계선이 확실하게 하지 않았고, 그 중에는 식물의 싹과 같은 생명의 시작이 있었다. 이 혼돈의 안, 맑았던 부분이 얇게 길게 뻗쳐져서 하늘이 되고, 무겁고 흐려진 부분이 밀려서 땅이 되었다. 精妙한 부분은 금방 합쳐져서 하나가 될 수 있었지만, 무겁게 흐려진 부분은 쉽게 굳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하늘이 먼저 생기고, 땅은 그 후에 생겼다. 그리고 그 후 신들이 그 중에 태어난 것이다.”

(9) 현대의 우주란 - 빅뱅(big bang) 이론

현대과학의 우주관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135-150억 년 전, 우주는 한점의 폭발에 의해서 태어났으며, 그것이 급격하게 팽창하며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거기서 소립자, 원자, 천체가 태어나면서, 현재와 같은 광대한 우주가 되었다. 이것이 빅뱅이론인데 그것은 宇宙卵이 부화하여 폭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10) 우주란과 새 창조론

새 창조론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할 때, 먼저 로고스(logos, 말씀)를 형성한 후, 피조세계를 창조했다. 로고스(logos)는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구상, 즉 설계도이다. 로고스(logos)가 형성될 때, 하나님은 인간의 구상을 모델(model)로 하여 고등생물→하등생물→천체→원자→소립자→빛으로 하향적 구상을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체의 피조세계를 창조할 때, 그 반대 방향(상향적 창조), 즉 빛에서 시작하여 인간을 목표로 하고 창조하였다. 따라서 우주는 빅뱅(big bang)으로부터 시작되고, 인간의 주거로서 지구를 형성하고, 나중에 인간이 탄생하도록 설계되었던 것이다. 전통 신화에 있어서는 그것을 우주 알에서 우주와 인간이 태어났다고 기술하였던 것이다. 우주 알 안에는 로고스(logos)가 잠재되어 있다. 그리고 로고스(logos)에 따라 세계가 창조된 것이다. 로고스(logos), 즉 하나님의 구상은 인간(아담과 해와)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인간의 생활환경으로서 만물을 준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우주 알속에 인간과 만물의 구상이 잠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전통 신화에서 기술하듯이 알이 부화되고 그 안에서 하늘과 땅, 인간, 동물, 식물 등등이 한꺼번에 생겨났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우주알 속에 들어 있었던 구상에 따라서 빛→소립자→원자→천체→하등생물→고생물→인간 등의 순서로 유구한 기간 동안 형성되어온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알 신화도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과학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3. 남녀신의 교합에 의한 천지창조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의 陽性을 구비하고 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

다. 동-서양의 신화를 개괄해 볼 때, 남녀신의 교합에 의해 만물의 형상이 태어났다는 신화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난다.

(1) 유대교(Judea religion), 그리스도교, 이슬람교(Islam)의 아담과 해와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창세기1:27)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한 사람의 남성과 한 사람의 여성을 맞춘 분이라는 결론이 된다. 그 남-녀 신으로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된 것이다. 이것은 유대교(Judea religion), 그리스도교, 이슬람교(Islam)의 공통된 견해다.

(2) 힌두(Hindu)교의 남녀신

리그 베다(Rig Veda)에 의하면 하늘의 남성신 디 아우스(Dy aus)와 대지의 여성 신 프리티비(Prithivi)가 교합한 천지 兩神, 디 아우스 · 프리티비가 만물의 부모가 되고 그 유지자가 있다고 한다. 디 아우스(Aus)와 프리티비에서 태어난 것이 <베다> 신들의 왕, 인드라(Indra)이다. 힌두이즘(Hindu Tantrism)에 따르면 남성신 시바(Siva, Shiva)와 여성 신 샤쿠티(Parvati-부인)와의 성적 합일에 의해서 우주 창조가 시작되었다고 설명되고 있다. 샤쿠티는 여성원리인 샤크티(sakti, 성력, Shakti)를 상징하는 여신이다.

(3) 중국의 신화 복희와 여와

용의 여신, 여와(Nu Wa)는 인류를 창조한 신이라고 생각되고 있지만, 사실은 여와는 복희(Fu Xi)와 꼬리로 꼬인 한 쌍의 신으로 알려졌다. 여와와 복희는 시조신이며, 천지를 창조한 신이다.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복희와 여와 오누이가 부부가 되어서 인류의 시조가 되었다고 전승된다. 우주의 근원인 태극으로부터 음양의 2氣가 생기고, 2氣로부터 4형태가 생기고, 4 형태로부터 8괘가 생겨났다. 이렇게 우주가 창조된 것이다. 이것도 우주의 근원이 남성과 여성의 2性を 겸비한 존재이며, 그 2性(2氣)에 의해 우주가 태어났음을 보이고 있다.

(4) 일본의 신화, 이자나기와 이자나미

하늘과 땅이 시작될 때, 높은 하늘에 아메노미 나카누시노 신을 중심으로 한 5神 코토아마츠 신과 2神의 근원신이 태어났다. 이러한 신들은 모습도 없으며 남녀의 성별이 없었다. 그 후 태어난 10神은 남녀 쌍의 모습을 하고, 최후에 태어난 신이 이자나기, 이자나미였다.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하늘에 있는 부교(浮橋)에 서서 하늘의 창을 휘휘 돌리자 오노고로 섬이 되었다. 오노고로 섬에 내려온 2神이 남녀로서 교접하여 8개 섬의 큰 나라(일본)가 탄생했다.

(5) 남-녀신에 의한 천지창조와 새 창조론

하나님은 양성(陽性)과 음성(陰性)의 이성성상의 中和的 주체이다. 즉, 하나님은 남성 신과 여성신이 하나가 된 존재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은 로고스(말씀)에 의해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지만, 로고스는 하나님의 음양의 이성성상을 닮아 있다. 즉, 남과 여, 암컷과 수컷, 암술과 수술, 양이온과 음이온의 쌍쌍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창조된 것이다. 이것은 남성 신과 여성신이 일체가 되고 있는 하나님이 2성의 수수작용에 의해 피조세계를 창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회전에 의한 창조

수직에 세운 기둥을 중심삼고 가스(gas)나 물을 휘저으면서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신화가 있다. 그리고 기둥을 세워서 그 주위를 사람들이 춤추면서 돈다고 하는 풍습도 세계각지에서 보인다.

(1) 고대 인도의 유해(乳海) 돌리기

아득한 옛날, 비슈누(Vishnu)신이 신들에게, 만다라(Mandara)산을 휘저을 수 있는 봉으로서 바스키

용(Vasuki)을 끈으로, 우유의 바다를 섞으라고 명했다. 비슈누 자신도 거대한 거북이의 모습으로 변해 회전의 중심축이 되었다. 이 회저음에 의해 달, 태양, 여신 라크슈미(Laksmi), 흰 코끼리 등이 나타났다. 마지막에 신들의 의사 다누방다리(Dhanwantari)가 不死의 명약을 훔쳤지만, 비슈누가 그것을 다시 빼앗아 신들은 세력을 회복했다.

(2) 거대한 불기둥(링가, linga)의 출현

링가(linga) · 푸라나는 시바(Siva)의 링가(linga)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비슈누와 브라마(Brahma)가 자신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언쟁하고 있을 때, 물속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출현했다. 비슈누는 물에 들어가고, 브라만(Brahma)은 하늘로 떠올라 불기둥의 끝부분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볼 수 없어서 돌아오자 시바(Siva)가 모습을 나타냈다.” 이 불기둥은 시바(Siva)의 우주적 형상이며, 그 現生的 상징(symbol)이 링가라고 한다. 링가로 타토에라타 불기둥은 우주창조의 기둥이었다고 전해진다.

(3) 하늘의 창 (일본 신화)

아메노미카누시노 신을 중심으로 5차원의 코토아마즈 신이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의 2신에게 하늘의 창을 맡겼다.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하늘의 부교(浮橋)에 서서, 다리 위에서 아득히 먼 아래로 긴 창을 휘휘 돌리자, 그 창끝에서 똑똑 소금 방울이 떨어졌다. 떨어진 소금이 쌓여 오노고로 섬(grounder)이 생겼다.

(4) 하늘의 기둥(일본 신화)

이자나기와 이자나미 2신은 오노고로 섬의 중심에서 하늘의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주변을 돌면서 부부의 교접을 하고 나라를 만들었다. 그리고 아와지 섬을 비롯해서 8개의 섬이 탄생했다. 오늘날 8개의 큰 섬나라, 일본 열도는 그렇게 탄생한 것이다.

(5) 御柱(온바시라)

일본에는 수와大寺(神社)에 ‘온바시라’라는 축제가 있다. 산에서 자른 나무를 타고 내려와 神社에 수직으로 세우는 행사이다. 아시아에서 네팔(Nepal) 카트만두(Kathmandu)지방에서 인드라자투라의 ‘호랑이기둥 세우기 축제’, 인도 아삼(Assam) 지방의 안다미-나카족의 ‘문을 끌고 돌아다니는 축제’, 미얀마(Myanmar) 적색 카렌족(Karen)의 ‘기둥세우기 축제’, 타이(Thailand) 서북부, 러프족의 마을광장에 세우는 ‘新年的 나무’, 중국 티베트(Tibet)자치구에서 우주의 배꼽이라고 불리는 가이라스산(6638m)기슭에 세우는 ‘성스러운 기둥’, 유럽(Europe)에서 스웨덴(Sweden) 키루나의 네프 랜드의 ‘夏至기둥’, 영국 켄트(Kent)주의 ‘5월의 기둥’(May pole), 독일의 Oktoberfest, 중미에서 멕시코(Mexico)파판도라의 ‘플라이인 인디언’(flying Indian) 등등 모두는 기둥(1개)을 세우고, 신이나 정령과 교환수단으로 행하는 행사라고 전한다. 영국의 메이 폴(May pole)은 5월1일 메이데이(May Day)에 교회나 마을에 기둥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초록 잎을 묶어 결부시킨 끈을 손에 들고 그 주위를 회전하면서 춤추는 풍습으로 전승된다.

(6) 현대과학의 우주상

우주탄생 10억년 후, 빛 물질이 모여서 구름이 되고 구름에서 생겨난 원시의 별은 무리를 지어 은하를 형성했다. 교시는 당시의 은하의 활발한 중심핵이었다고 전해진다. 교시는 빔(beam)을 중심으로 하여 회전하고 있다. 별의 죽음, 超新星의 폭발에 의해서 남은 것은 파루사(pulsar)라고 불리는 중성자 별이다. X선 빔(beam)을 중심으로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다. 은하계의 중심핵에 있는 블랙 홀(black hole)은 물질을 분출하여 우주 공간으로 뿜어내는 엔진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중심으로 분출되는 제트류를 중심삼고 가스(gas)구름이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과학의 우주상으로 볼 때, 별이나 별의 집단인 은하는 중심축, 빔(beam)의 주변을 회전하면서 탄생-존재하고 또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7) 우주창조에서 회전과 새 창조론

하나님의 우주창조는 창조의 원리인 천도에 의해 행해지며, 우주는 천도에 의해 운행된다. 주체와 대상이 중심축을 중심삼고 원만한 수수작용을 행하면, 원환운동이 벌어진다. 이것이 기본 법칙이다(이때 주체가 중심축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주의 창조도, 은하의 운행도, 별의 소멸도, 중심축을 중심삼고 회전하면서 운행되는 것이다. 인간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종적 참 사랑(하나님의 사랑)의 축을 중심삼고 서로 사랑할 때, 참된 부부가 되는 것이며, 개인에 있어서도 마음의 축을 중심삼고 몸이 회전함으로써 참된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다. 전통적 신화에서도 이와 유사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표현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말씀에 의한 창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세계가 창조되었다고 하는 성전이나 신화가 세계각지에서 보인다.

(1) 로고스(logos)에 의한 창조 (기독교)

요한복음에 먼저 말씀이 있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모든 것은 이것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처럼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말씀(로고스)으로써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다.

(2) ‘명령대로 되라’의 말씀에 의한 창조(이슬람교)

코란(koran)의 성구에 있는 바와 같이 이슬람교(Islam)에서는 신이 ‘... 되라’라는 말씀에 의해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천지의 창조주가 명령을 내리실 때, 그저 ‘명령대로 되라’라는 말씀으로 모든 것이 그대로 된다(쿠란 2:117). 만약 이 방법에 있는 것을 결정한 경우라면, 그저 ‘.... 되라’고 한 마디를 말함으로써 성취된다(꾸란40:68).

(3) 창조신 프타하의 말씀에 의한 창조(이집트)

멤피스(Memphis)인들은 ‘부탄’(Ptah)을 세계의 창조주로 여긴다. 부탄은 모든 것을 사고와 말씀에 의해 창조하였다. 그의 심장에서 나오는 사고와 혀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은 현실적인 것이 된다고 전해진다.

(4) 토토에 의한 창조(이집트)

토토(Thoth)는 전 이집트(Egypt)의 최고신 라(la)의 대리인이지만, 헤르모폴리스(Hermopolis)의 신화에 따르면, 토토는 우주를 창조한 신이라는 것이다. 그는 원초적 우주란으로서 스스로 창조하여 연꽃 위에 나타났다. 토토가 말을 하면 그 말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즉, 말씀에 의해서 만물을 창조한 것이다.

(5) 마야(Maya) 신화의 창조론

태초에 하늘과 바다가 넓어질 때 테페우(Tepeu)와 ‘翼毛의 뱀’ 쿠구마츠(Gucumatx)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텅 빈 공간에 무엇인가가 생기면 좋겠다고 그들이 생각하면, 실제로 무엇인가 나타났다. “땅이 생겨라”라고 하면 대지가 생기고, 산을 생각하면 산이 나타나고, “나무여...” 하면 나무가 생겼다. 이렇게 창조는 계속되었다.

(6) 아마츠 신의 말에 의한 창조(일본 신화)

아마노오오나카 신을 중심삼은 5기둥의 아마츠 신의 말이 이자나기와 이자나미 신에 주어졌다. 즉, 땅을 잘 정리하고, 만들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하늘의 창을 맡겼다. 이자나기와 이자나미 신은 그 말에 따라 나라 만들기를 행했다. 그것이 8개 큰 섬 일본열도이다.

(7) 새 창조론 — 창조의 2단 구조

하나님의 창조론에 따르면 처음에 로고스(logos, 말씀)가 형성되고 다음에 로고스에 따라서 피조세계가 창조되었다. 로고스의 형성은 인간을 중심한 하향성 창조이었다. 즉, 하나님은 인간시조 아담, 해와의 구상을 최초로 세우고, 그것을 모델(model)로 하여 고등생물에서 하등생물, 그리고 천체, 원자, 소립자, 빛의 순서로 세계를 구상하였다. 다음에 로고스에 따라서 피조세계가 창조될 때, 그것은 로고스의 형성과 반대의 순서, 즉 상향적으로 빛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단계인 인간이 창조된 것이다.

6. 태초의 내용

無로부터의 창조 신화는 ‘엑스 니히로’(ex nihilo) 또는 ‘드 노보’(de novo)형 창조로 불리며, 특히 일신교의 종교에 현저하게 보인다. 그 밖에 태초에 물과 흙이 있었다고 하는 신화도 있다.

(1)기독교의 無의 창조

기독교에서는 無로부터 창조는 어거스틴에 의해 확립되었다. 신은 無로부터 질료를 창조하여 그 질료를 원료로 하여 세계를 창조하였다. 즉, 전능한 신은 아무 재료도 없이 어떤 수단도 쓰지 않고 우주를 창조한 것이다.

(2) 이슬람교의 無의 창조

‘그들 [인간]은 無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52:35)’라고 여기는 것처럼, 꾸란(koran)에는 무에서 창조로 기록된 사례를 몇 가지 볼 수 있다.

(3) 불교의 세상의 시작

불교에서는 세계의 창조에 관해 별로 관심을 갖지 못했지만, 초기 인도 불교의 경전 중에는 이 세상의 끝과 새로운 세상의 창조에 대해 말한 몇 가지가 있다. 불교에서는 창조자에 해당되는 존재가 없는 일종의 ‘무에서 창조’이다. 처음에는 모든 것은 물과 어둠에 덮여 있었다. 유구한 세월동안 태양도 달도 별도 없었으며, 계절의 변화도 없었으며, 생명도 사람도 없었다. 뜨거운 젓이 식어서 표면에 막이 생기는 것처럼, 물위에 땅이 생겼다. 그리고 육체를 가진 자가 나타나고, 태양과 달과 별이 나타나며, 남성과 여성의 양성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4) 흙과 원초의 바다(물)에서 창조

원초의 바다에서 창조설은 많은 창조 신화에 나타나는 공통적 주제이다. 그리고 흙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창조설도 보인다. 그리고 초월신이 동물(집오리, 거북이 등)을 원초의 바다에 다이빙시켜 물바닥에서 채취한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침수형의 창조 신화도 보인다.

(5) 현대과학의 無로부터 우주창생론

현대 우주과학자 알렉산더(Alexander) 빌링킨은 無로부터 우주창조론을 발표했다. 어느 날 갑자기 시간도 공간도 없는 무에서 소립자보다 작은 단원 우주가 에너지(energy)의 벽을 터널(tunnel)처럼 통과하여 우주가 탄생했다고 한다. 여기서 빌링킨이 말하는 無란 아무 것도 없는 無가 아니라, ‘무엇인가로 가득 찬 無’, ‘한없는 힘을 배후에 지니고 있는 無’이며 진공의 에너지(energy)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6) 새 창조론에서 본 無로부터 창조

하나님은 아무 것도 없는 것에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다. 따라서 피조세계는 말 그대로 무로부터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에겐 세계를 만들어낼 에너지(energy)가 구비되어 있으며, 그 에너지(‘전 에너지’라고 한다)에 의해 힘과 물질이 연유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적인 무로부터의 창조

는 이루어질 수 없다. 현대 우주론의 진공 에너지(energy)란 ‘전 에너지(pre-energy)’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에너지인 ‘전 에너지’에서 에너지가 생기고, 더 나아가 에너지(energy)에서 소립자, 원자, 분자, 그리고 원초의 물질인 물이나 공기나 흙 등이 연유한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처음 ‘빛이 있었다.’라고 할 때, 빅뱅(big bang)의 열에너지가 이에 해당한다. 원초적 물, 공기, 흙 등에서 창조가 되었다는 신화는 ‘전 에너지’(pre-energy)에서 형성된 원초적 물질을 재료로 삼아 로고스에 따라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 신화에서 태초의 물질을 물, 공기, 흙 등으로 간주한 것이다.

註

(1) 실제로 *The Interpreter's Bible* (New York: Abingdon Press, 1952)에는次のように記されている。It must be noted, however, that this verse stands apart from the rest of the chapter in that (a) it represents the Spirit of God, not the uttered word, as the agent of creation; and (b) the reference to the Spirit “brooding upon”. . . the chaos has underlying it the idea of a cosmic egg which was hatched by the brooding Spirit, as by a bird, to produce the universe, an idea which is foreign to the story as a whole (vol.1, 466-67).

(2) D.リーミング, M.リーミング, 松浦俊輔他 譯 『創造神話の事典』 青土社, 1998年, 256頁。

(3) 同上, 335-336頁。

참고문헌

- Littleton, C. Scott, general editor, *Mythology*. San Diego: Thunder Bay Press, 2002.
- Leeming, D. Adams with Leeming M. Adams, *Encyclopedia of Creation Myths*. Denver: ABC-CLIO, 1994.
- D.リーミング, M.リーミング, 松浦俊輔他 『創造神話の事典』 青土社, 1998年。
- Nolan B. Harmon, editor, *The Interpreter's Bible*. 12 vols. New York: Abingdon Press, 1952-57.
- 松村一男監修 『世界の神々の事典』 学習研究社, 2004年。
- 福士齊-佐々木勝 編集 『ヒンドゥー教の本』 学習研究社, 1995年。
- 後藤然他編 『神道の本』 学習研究社, 1992年。
- 大林太良編 『世界の神話』 NHKブックス, 1976年。
- 吉田敦彦 『天地創造99の謎』 産報, 1976年。
- リチャード-ウォードストーン著, 阿部慈園監修, 藤さわ邦子 譯 『インドの神々』 創元社, 1997年。
- 荒川紘 『東と西の宇宙観-東洋編』 紀伊國屋書店, 2005年。
- 荒川紘 『東と西の宇宙観-西洋編』 紀伊國屋書店, 2005年。
- 鳥越憲三郎 『古代朝鮮と倭族』 中央公論社, 中央新書, 1992年。
- 金兩基 『物語韓國史』 中央公論社, 1989年。